

김정순 할머니 러브하우스 오픈

포천 리더스 클럽 등 6개 단체 동참

화재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김정순(69세) 할머니를 돕기 위해 포천시 건축사회 등 6개 단체가 러브하우스를 건축해 지역사회의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당뇨에 의한 시력이 감퇴되어 정상적인 거동이 힘든 김정순 할머니는 포천초등학교에 다니는 손녀딸과 끼니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에서 2007년 7월 17일 화재로 살고있는 가옥이 전소되어 오고갈 때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게다가 김 할머니는 화재 당시 입은 화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김 할머니의 재산은 맹자인 집터가 전부로 재산적 가치가 없고 사업의 부도로 부양할 수 없는 가족

으로 인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주위의 손길의 필요했다.

이같은 소식은 포천시 관계자가 건축사 회장에 알렸고 7월 31일 포천 리더스클럽 월례회의에서 김 할머니를 위한 집을 건축하기로 결정했다.

포천 리더클럽의 결정이 계기가 되어 포천시 건축사회(회장 지현춘)가 주관하고 포천 리더스클럽(회장 황광익), 포천 라이온스클럽(회장 지현춘), 읍담회(회장 이승식), 포천감리교회(담임목사 노수우) 등 6개 단체가 동참해 각각 100만원씩 총 600만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또한 사람의 집짓기 시공은 포천시 건축사회에서 주관하기로 하고 시공후원자를 찾던 중 포천하우징(대표 임성환)에서 건축비용을 전담하기로 하고 9월 7일 착공에 들어갔다. 이외에도 양호식 법무사가 행정 및 법무지원, 남북레미콘 양만지 대표이사가 레미콘 1대만 지원, 대일전기 김진수 대표가 제남 전기료와 외선전기인입공사 등에 동참해 9월 21일 건축을 완료하고 28일 입주를 하게됐다.

새롭게 단장된 김 할머니의 집은 신음동 128-9번지에 34.95㎡의 경량철골조로 이루어졌다.

김 할머니는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 밖에 없다"면서 "열심히 건강을 회복하고 자녀들에게 세상에 좋은



화재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김정순 할머니를 돕기 위해 포천시 건축사회 등 6개 단체가 러브하우스를 건축해 지역사회의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일을 많이 하라"고 하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 할머니를 알고 지냈던 사람들은 "할머니는 신복면과 소흘읍, 포천 동에서 16년간 공직생활을 했던 분으로 당시 어렵고 힘든 영세민을

추천! 이야기 한마당

부부의 법칙

이보용 본지 저널리스트

부부가 갈등의 모래사막에 빠져 헤매 때 즉시 자존심과 자신의 고집이라는 바람을 빼는 일이 다. 그러면 둘 다 살 수 있다.

모든 사물에는 법칙이 있듯 부부가 살아가는 일에도 법칙이 있을 수 없습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이런 법칙을 따라 보는 것은 어떨까요.

1. 산술의 법칙 - 한 소년이 엄마 품에 안겨 울먹거리며 말했다. "엄마, 산이 날 보고 자꾸 바보라 그래요."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물었다. "너가 뭐라고 했는데?" 아이가 대답했다. "아, 이 바보야!" 순간 엄마가 빙그레 웃으며 아이에게 말했다. 그러면 내일은 산에 가서 "야, 이 천재야!!!" 하고 외쳐 보렴.

아이는 다음 날 산에 가서 엄마가 가르쳐 준대로 해 보았다. 그러자 정말로 산이 소리쳐 주었다. "야, 이 천재야!!!!!"

대답받고자 하는 대로 대답하는 것이야말로 부부의 황금율이라 할 수 있다.

2. 실과 바늘의 법칙 - 부부란 실과 바늘의 약장이라 할 수 있다. 바늘이 너무 빨리 가면 실이 끊어지고 바늘이 너무 느리면 실은 엉키고 만다. 그렇다고 바늘대신 실을 잡아당기면 실과 바늘은 따로 날게 된다. 더구나 실과 바늘은 자신의 역할을 바꿀 수도 없고 바꾸어서도 안 된다. 실과 바늘의 조화, 여기에 부부합화의 비법이 있다.

3. 수영의 법칙 - 수영을 배운 후 물 속에 뛰어드는 사람은

없다. 모두들 물 속에 뛰어들어 수영을 익힌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이치를 다 배워 결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 사랑의 이치를 깨우쳐 가게 된다. 그러므로 피차 미숙함을 전제하고 살아갈 때 서로 인내할 수 있게 된다.

4. 타이어의 법칙 - 사막의 모래에서 차가 빠져 나오는 방법은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일이다. 공기를 빼면 타이어가 평평해져서 바퀴 표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모래 구덩이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 부부가 갈등의 모래사막에 빠져 헤매 때 즉시 자존심과 자신의 고집이라는 바람을 빼는 일이다. 그러면 둘 다 살 수 있다.

5. 거울의 법칙 - 거울을 통해 세상을 볼 수는 없다. 거울을 통해 사 단지 나 자신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배우자는 서로를 위한 거울과 같다. 나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 동시에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 거울은 먼저 웃는 법이 없다는 사실이다.

6. 김치의 법칙 - 배추는 5번 이상 죽어서야 김치가 된다. 땅에서 뽑힐 때, 칼로 배추의 배를 갈 때, 소금에 절일 때, 매운 고추와 찧갈과 마늘의 양념이 배무러질 때, 그리고 양념에서 찌질 때... 그리고 입안에서 김치라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 행복이란 맛을 내기 위해 부부도 죽고 죽어야 한다. 그래야 행복이 피어난다.

7. 고객제의 법칙 - 고객에게는 절대 화를 낼 수 없다. 항상 미소로 맞이해야 한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재빨리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부란 말다툼을 하던 여겨 살 때만 멋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배우자를 나의 마지막 고객이라 여겨라. 거기에 부부합화의 비법이 있다. (문의 011-342-5834)

"코스모스 꽃길을 함께 걸어요"

제2회 군내면 코스모스 꽃길 걷기대회 열려

가을의 문턱에 다다른 9월 마지막주 일요일, 포천시 군내면은 작년 이어 두 번째로 코스모스 꽃길을 시민들과 함께 걷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군내면 6개 단체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민과 각종 동호회 회원들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사무소 광장에서 간단한 준비운동을 하고 출발했다.

군내면 구유리에서 삼성ברי, 하성ברי를 잇는 코스모스 꽃길은 양복 6.5km 구간으로 3년 전부터 주민들이 정성껏 가꾼 코스모스 길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군내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하면서 걷기운동을 함으로써 건강 증진과 마음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시민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주는

클래식음악을 들으며 군내면 꽃길을 걸으니 평소와는 다른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 코스모스 꽃길을 걸으며 예쁘게 사진도 찍을 수 있어 소중한 추억을 만들게 되었다"며 흐뭇해 했다.

군내면에서는 걷기 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하였고, 어린이들에게는 학용품 세트를 선물했다. 또한 간식으로 순두부와 막걸리, 과일, 떡 등을 준비하여 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봉훈 군내면장은 지금 한창 아름답게 핀 코스모스 꽃길을 가족·연인들과 함께 걸으면서 열린 가슴과 맑은 눈으로 풍경을 감상하고 가을 정취에 흠뻑 취하는 여유를 가지기를 권유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가을의 문턱에 다다른 9월 마지막주 일요일, 포천시 군내면은 작년 이어 두 번째로 코스모스 꽃길을 시민들과 함께 걷는 행사를 가졌다.

시인의窓

비천(卑賤)

손 영 배(포천문인협회 회원)

나는 비천에 처할 수 있는가 어느 곳에 오라 하는데 없어도 용감하게 갈 수 있는가 세상 저어기 낮은 곳까지 미련 없이 갈 수 있는가 사람들이 싫어하고 인간대접 안해 주는 곳까지 갈 수 있는가

권불산비이라 했는데 있다가 사라질 수 있는가 때가 되면 모였나 흩어지는 아홉의 장을 보고 있지 않는가 피라미 때지 듯 많이들 모였다가 순간 사라지고 없다 좋은 이름 남기면 다행이런담 담장 높이 갖힌 곳에 이름 석 자 크게 박혀도 부끄러워 않는가

<감상노트>

세상은 물리적 단위와 다양한 신분적 계급과 자리로 짜여진 성분 속에서 화해와 다름을 반복하며 도전해 간다. 흔히 사람들은 자연의 이치를 깨닫기 이전에 고경관념과 훈련된 계산으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한다. 그러나 시대는 이미 차별화 된

까닭에서 화해의 소통으로 교감하는 시민문화적 이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제 수직적 매력에서 수평적 호감으로 미래를 바라본다. 이때 합리적인 추임새를 놓으며 이날로그에서 디지털문화의 속도에 슬기로운 적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안 익 수(시인)

면암 최익현 선생 생가터 기념비 제막식

100주기 기념사업 일환 송모사업회 성역화 첫 발걸음

면암 최익현 선생 100주기를 기념하는 기념비 제막식 행사가 최익현 선생의 신복면 가재리 생가터에서 면암 최익현선생 송모사업회 주최로 9월 27일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면암 최익현선생 100주기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

되는 행사로서 그간 출생지이면서 정작 현재까지 성역화가 되지 못하고 다소 소홀했던 생가터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의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면암 최익현 선생은 포천시 신복면 가재리에서 출생하고 고난의 일생을 살다가 74세의 일기로 일본 대마도의 한병 감옥에서 일제의 음모를 거절하여 단식을 하다가 결국 순국한 분으로, 광생을 청렴강직한 성품으로 백성들에게 높은 존경을 받았으며 일제의 침탈로 나라가 어려울 때 줄기차게 저항운동을 펼친 분이시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윤국 포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면암 최익현 선생의 생가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기념관 건립 등을 추진함으로써 면암 선생의 뜻을 기리며, 진정한 정신적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면암 최익현 선생 100주기를 기념하는 기념비 제막식 행사가 최익현 선생의 신복면 가재리 생가터에서 면암 최익현선생 송모사업회 주최로 9월 27일 개최됐다.

'광릉숲 보전 협의회' 공식 출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행정기관 등 20여명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박종서)은 세계적인 자연유산인 광릉숲을 잘 보전·관리하기 위해 민·관·학이 같이하는 '광릉숲 보전 협의회'가 지난 18일 발족·출범했다.

협의회는 국립수목원을 비롯한 경기도 등 행정기관과 민간 시민단체, 지역주민 대표 등 모두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릉숲 보전 업무에 대한 이해증진과 상호협력의 기회를 넓혀 '광릉숲 보전 협의회'가 지난 18일 발족·출범했다.

협의회의는 국립수목원을 비롯한 경기도 등 행정기관과 민간 시민단체, 지역주민 대표 등 모두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릉숲 보전 업무에 대한 이해증진과 상호협력의 기회를 넓혀 '광릉숲 보전 협의회'가 지난 18일 발족·출범했다.

협의회의는 국립수목원을 비롯한 경기도 등 행정기관과 민간 시민단체, 지역주민 대표 등 모두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릉숲 보전 업무에 대한 이해증진과 상호협력의 기회를 넓혀 '광릉숲 보전 협의회'가 지난 18일 발족·출범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위원장으로 광릉숲보전협회 허남주

2007 포천시 환경미화원 워크숍

효과적인 쓰레기 처리방안 의견나눠

포천시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간 영북면 산정호수 한화콘도에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2007 포천시 환경미화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유공 환경미화원들의 표창, 레크레이션 활동과 함께 환경미화원간의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 합리적인 연탄재 처리방안, 효율적인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누어 정보교류 등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행정과 환경미화원이 함께하는 윈-윈 분위기를 조성했다.

한편, 한 환경미화원은 금반 워크숍 개최로 환경미화원간 친목 도모를 통하여 반복된 업무 누적으로 인한 피로를 해소하고 환경미화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는 9월 21일 미래의 중심이 될 어린 새싹들의 꿈의 터전인 시립 내츰꿈나무어린이집의 개원식이 개최됐다.

이날 어린이집 놀이광장에는 환경영철 포천시부시장, 배상택 영북면장, 정영자 어린이집 연합회장,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개원을 축하해 주었으며, 김승현 원장은 시립어린이집의 개원을 통해 보다 질 높은 보육환경에서 사랑과 꿈을 품은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보육할 것을 다짐했다.

내츰 꿈나무 어린이집은 총사업비 3억 6천여 만원이 소요되었고, 지상1층으로 보육실 5, 사무실, 조리실, 화장실, 유희실, 자료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바깥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한껏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포천시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간 영북면 산정호수 한화콘도에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2007 포천시 환경미화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시택먼저 친정먼저

말다툼 끝에 자살

지난 9월 25일 03시 30분경 소흘읍 송우리 모 아파트에서 자살로 추정되는 번사체가 발견됐다. 번사자(이모씨 36세 노동)는 런닝셔츠와 하의는 잠옷 바지를 착용한 채 숨져 있었으며 처(안모씨 32세 주부)의 신고로 발견됐다.

번사체로 발견된 이모씨는 지난 24일 처(안모씨)의 친정인 이흥교리에 소재 한 모 아파트에 함께 동행한 후 처(안모씨)를 비롯한 친정 식구들과 술을 마신 후 인근 노래방을 들렀다. 노래방을 나와 다시 처의 친정에 도착한 남편 이모씨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경찰이 시택은 들리지 않고 친정부터 가

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말하자 처(안모씨)는 "친정에는 제사가 있으니 그럴 수 있지 않냐"라며 말다툼을 하다가 친정 식구들이 이를 말리자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와 술에 취해 2차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모씨는 처(안모씨)의 뺨을 1회 때린 후 "혼자서 살 살아봐"라고 말한 후 배란다로 나가 17층 아래로 뛰어내려 두개골이 함몰된 채 숨져 있었다.

포천경찰서(서장 김귀찬)는 번사자의 유족 및 주변인들을 상대로 번사자의 최후 행적, 자살을 할 만한 동기의 유무를 조사하여 번사 경위를 명백하게 조사한 후 자살로 인정, 사체 검사와 사인을 규명할 후 유족들에게 안전하게 인도했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사랑이 흐르는 식당

수많은 인연의 끈 중에 선택된 하나의 끈이 나와 묶이게 되었고 하나가 된 둘은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운명의 부부가 된다. 옛 박자로 인해 불협화음도 나지만 아름다운 하모니가 내는 지금은 지금도 나를 흥분하게 한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을 느끼는 감정은 항상 그대로 인가보다.

어느 노부부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저씨는 입이 약간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발장사를 하다가 너무도 고약한 거래처를 만나 충격으로 쓰러졌을 때의 후유증이 남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밥을 하는 아주머니는 그 아저씨에게 상냥한 목소리로 "자기가!"하고 호칭을 했다. 좀 의아해서 바라보았는데 그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마치 신혼부부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점심을 먹고 있는 동안 밥과 반찬도 맛있었지만 식당부부의 사랑스럽고 서로를 위하는 눈빛이 더 눈길이었다. 손님이 많아서 기다리고 있는

데도 아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다. 아마도 사랑으로 열심히 일하는 부부의 모습에 반하고 기다려서 짜증나는 마음이 모두 녹아버려서 그런 것 같다. 노장의 부부가 남에게 밥을 해주는 일을 하면서 힘들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나가 애인에게 특별한 내내 음식을 해주는 것 같은 따스함이 흐르고 있었다.

만나면 토닥거리는 것이 나의 일상이고 상냥한 호칭을 내고 산지가 언제인지 까마득하다.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는데 하지 않으면서 은근히 부러운 것은 무슨 어떨까? 돈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식당을 나오면서 웬지 특별한 음식을 값싸게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오늘부터 달콤한 사랑의 말로 고단한 세상살이의 힘겨움을 달아내는 연습을 해야겠다. 바닷가 모래밭보다 많은 인연의 끈 중에 당신이 허락한 단 하나의 내 사랑에게.

*용역자의 세상읽기 · 18

사랑이 흐르는 식당

수많은 인연의 끈 중에 선택된 하나의 끈이 나와 묶이게 되었고 하나가 된 둘은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운명의 부부가 된다. 옛 박자로 인해 불협화음도 나지만 아름다운 하모니가 내는 지금은 지금도 나를 흥분하게 한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을 느끼는 감정은 항상 그대로 인가보다.

어느 노부부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저씨는 입이 약간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발장사를 하다가 너무도 고약한 거래처를 만나 충격으로 쓰러졌을 때의 후유증이 남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밥을 하는 아주머니는 그 아저씨에게 상냥한 목소리로 "자기가!"하고 호칭을 했다. 좀 의아해서 바라보았는데 그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마치 신혼부부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점심을 먹고 있는 동안 밥과 반찬도 맛있었지만 식당부부의 사랑스럽고 서로를 위하는 눈빛이 더 눈길이었다. 손님이 많아서 기다리고 있는